

보성 우종미술관에 펼쳐진 '아름다운 순간들'

사람·쿠사마 야요이나라 요시토모·이우환·김환기·이중섭·장욱진·김창렬. 인구 3만 8000명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한 미술관 소장 작품 목록이 놀랍다. 미술관 소장품은 1500여점에 이른다. 푸른 차밭과 태백산맥문학관 등으로 유명한 보성의 '우종미술관' (조성면 조성 3길 338)이다. 미술관은 독특하게 골프장 안에 자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금, 우종미술관 안과 밖은 모두 꽃잔치다. 봉우리를 터트리기 시작한 매화,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는 나무, 멀리 보이는 저수지까지 어우러진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이다. 전시장 안에는 '진짜 그림'이 있다. 모란, 패랭이꽃 등 대가들이 화폭에 펼쳐놓은 꽃들은 황홀하다.

보성 컨트리클럽에 자리한 우종미술관(관장 우영인)이 1·2 전시실에서 올해 첫번째 소장전을 열

5월 31일까지 소장전...사갈 '연인들과 붉은 꽃' 등 17명 작품 전시 골프장 안 미술관...쿠사마 야요이·이우환·앤디워홀 등 1500점 소장

고 있다. 오는 5월31일까지 '아름다운 순간들'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는 꽃과 여인을 소재로 한 국내외 작가 17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건 사갈의 작품 '연인들과 붉은 꽃' (27×35cm)이다. 사갈 특유의 파스텔 톤 색감과 몽환적인 느낌의 그림은 소품이지만 깊은 울림을 준다. 또 꽃·새와 함께 앉아있는 단정하고 소녀의 모습이 인상적인 박향률의 '새벽', 화병에 쏟아질 듯 담겨 있는 꽃이 눈길을 끄는 도상봉의 '정물', 김중학의 '패랭이꽃'과 '할미꽃', 천경자의 '무제' 등도 놓치지 야까운 작품이다.

이건희 컬렉션전에서 주로 풍경을 만났던 오지호

의 작품으로는 '모란', '뚝단' 등 정물화가 나왔고, 프랑스 작가 앙드레 브라질리에의 대형 작품과 이당 김은호의 '화조도', 허백련의 '화조괴석도', 권욱연·최상중·전원장 작가 등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우종미술관은 타 미술관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관람객들의 방문이 여의치는 않지만, 소장품의 면면을 알고 나면 시간을 들여 꼭 방문해보고 싶어진다. 우종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펴낸 도록 '근현대미술의 여정'에 실린 국내외 작가 87명의 이름과 그들의 작품은 소장품의 수준을 잘 말해준다.

미술관은 매년 두 차례 소장품 기획전을 연다. 지난해 열린 소장전 '추상의 언어, 조형세계로의 초대' 전에는 이우환·박서보·데이비안하스트·김환기·이응로, 호안미로의 작품이 나왔다. 또 다른 기획전 '색과 빛을 그리다'에서는 앤디워홀의 '마릴린 먼로'를 비롯해 말콤 몰라·잭슨 폴록·야마다 타로·천경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박물관실로 운영중인 3전시실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보물 제875호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권7-10)'을 비롯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유물과 고미술품, 화려한 일본 근·현대 도자기와 공예품이 상설전시돼 있어 천천히 둘러보기 좋다.

미술관은 소장전과 함께 1년에 한 차례 중견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도상봉·전지연 작가 등의 전시회가 열렸고 오는 6월에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남작가 전시가 예정돼 있다. 미술관은 또 보성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관 관람 프로그램 등도 진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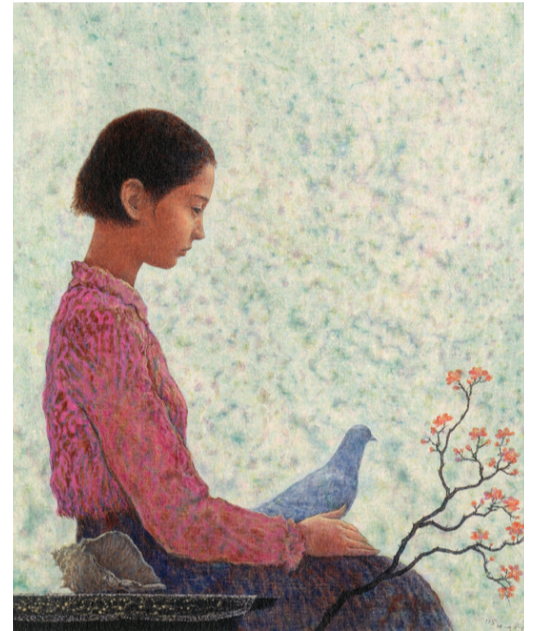
우종미술관은 친환경기업 (주)와이엔텍과 보성 컨트리클럽 등을 운영하는 박용하 우종문화재단 대표가 설립했다. 한국미술·고미술을 주로 수집했던 부친의 뒤를 이어 박 대표는 서양화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고 골프장을 만들며 정식으로 미술관을 오픈했다.

우종미술관은 지난해 구례에 문을 연 갤러리 겸 카페 '반아원 플라타너스'에도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공들여 꾸민 정원 등이 돋보이는 이곳 갤러리에서는 앤디워홀, 후안 미로, 피카소 등의 판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월·화요일 휴무. 관람시간 오전 10시30분~오후 5시. 문의 061-804-1092.



마크 사갈 작 '연인들과 붉은 꽃'



박향률 작 '새벽'



골프장 안에 자리한 보성 우종미술관은 사갈의 작품 등 1500여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마음이 미발견이다



2021년 열린 양림골목비엔날레 모습.

<양림미술관거리협업체제 제공>

'양림골목비엔날레' 놀러오세요

4월 14일~6월 25일...전시·체험·아트마켓 등 다채 카페·식당에선 신메뉴 출시, 그랜드세일 행사 진행

'마을과 세계가 만나는 양림골목비엔날레.' 근대화유산의 보고 양림동에서 지난 2021년 처음 열린 '양림골목비엔날레'는 동네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꾸민 의미있는 행사였다. 갤러리 뿐 아니라 카페와 식당 등 마을 곳곳이 미술관으로 변신하고, 상점 등에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이어졌다.

마을 내 예술인과 문화기획자가 주축이 된 '양림동미술관거리협업체'가 주관하는 2023 양림동 골목비엔날레가 오는 4월 14일~6월 25일까지 양림동 곳곳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이남 스튜디오, 이강미술관, 포도나무갤러리, 양림미술관 등 양림동 일대 미술관들이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본전시관과 프랑스, 캐나다 등 4개국 파빌리온 프로젝트 전시 공간으로 선정되고 양림동이 2023~24년 대한민국 관광100선에 뽑혀 많은 이들이 양림동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양림골목비엔날레는 지난 2월 집행위원장 한희원(서양화가), 추진위원장 강신겸(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해 추진위원 18명을 위

촉하고 행사를 준비해왔다.

올해는 마을 축제와 미술 기획전시를 전문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이강미술관 이선 큐레이터를 전시감독으로 선정했다. 올해 전시파트는 '기후 위기 시대, 생명의 힘'을 주제로 열리며 최근 공개 모집을 통해 김경란·이뿌리·김설하·김지희·표인부 등 15명의 참여작가를 선정했다. 전시공간은 양림동 골목골목 빈집과 빈 점포 7곳을 활용한다.

또 최순임, 이조홍, 한부철, 한희원 등 양림동 곳곳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작가들을 만나는 '오픈 스튜디오' 행사도 진행한다. 기존 작가 갤러리 이외에도 새롭게 전시장으로 조성된 일상공간과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아뜰리에 등에서도 작가를 만날 수 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은 4월 5일부터 약 열흘간 프리 오픈 기간을 가지며 작품 구매가 가능한 아트마켓은 6월 25일까지 10년후그라운드에서 진행된다.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호스트가 돼 방문객을 맞이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양림스프링크는 양림동 내 식당, 카페 등 상점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랜

드세일 행사다. 축제 기간 동안 두 번의 시즌(4월 5일~16일, 5월19~28)에 걸쳐 전 매장 10% 할인을 제공하고, 각 점포만의 시그니처 메뉴 또는 신메뉴를 선보인다.

광주시 예술여행학교 출신 수료생들과 함께 예술체험 및 도슨트 투어도 선보인다. 도슨트 투어는 같은 시기에 펼쳐지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와 양림골목비엔날레를 연계해 코스를 구성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드로잉 투어, 초상화 체험, 커피박 공예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그밖에 양림한평숲은 마을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평숲조성가(가드너)를 양성하는 교육과정과 실습을 거쳐 마을 공유지 2~3개소에 시범 숲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지역 예술계와 국제 예술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아트살롱 파티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개최된다.

민간 주도 행사인 테라 재원 마련은 가장 신경 쓴 부분 중 하나다. 주최측은 '양림골목비엔날레 여행주인(후원자) 모집' 온라인 펀딩을 성공적으로 완료, 기금을 참여작가 전시 등을 위해 사용한다. 후속 펀딩으로 아트마켓도 준비중이며 판매대금의 50%는 역시 행사 운영을 위해 기부된다. 이외에도 광주 남구청, 광주관광재단 등 공공기관도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돕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의 밤'으로 초대합니다

진헌성 시인 '잘 살고 갑니다' 출간...18일 출판기념회

"세월의 수모를 우리는 약으로 참아왔다. 한반도인은 밤하늘조차 사랑해야 했다. 그 안에는 무수한 별의 의지가 파묻혀 있는 미래가 있기에, 다시 강조하거나 노자 사상에 과학의 접목은 무리짓지 않는 홍익인간의 문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연은 테크놀로지의 혼연스런 모성애의 으뜸 덕목이다."

최근 시집 제 16권 '잘 살고 갑니다'(한림)를 펴낸 진헌성 시인(광주 진내과 월장)의 출판기념회가 오는 18일 오후 5시 전일빌딩245 9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광주문인협회와 국제펜 광주지역위원회, 광주시인협회,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원탁시회, 한림문화재단, 시와사람, 광주추진문학회, 전남대학교의과대학이 후원한다.

'진헌성 시인 '시의 밤- 잘 살고 갑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출판기념회는 식전 공연을 비롯해 시낭송, 연대시 낭송, 우리 춤 등 다채로운 행사가 곁들여진다.

이번 시집에 수록된 1049편을 합하면 시인은 지금까지 총 1만3180편이라는 방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셈이다. 작품이 많다고 결코 태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하나하나의 시가 지닌 무게와 의미, 사유의 깊이가 남다르기 때문일 터.

자연발생적으로 토해내듯 풀어진 시가 있는가 하면 장 시간 궁구해 단상을 정지하게 형성화한 작품도 적지 않다. 과학과 이성, 합



리, 노자, 장자 등 경계를 넘어 구축한 독특한 문학은 결코 여타의 시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진 시인의 문학세계가 언젠고 제대로 조명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찍이 시인은 1970년 '현대문학'에 김현승 시인의 추천을 받아 한국문단에 등단한 바 있다. 광주문학상, 해동문학상, 대한민국향토문학상, 대한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문학적 성취를 일궈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김정희 시인의 사회로 진행되며 1부에는 식전공연이 펼쳐진다.

2부에는 김종 시인의 진헌성 시인의 약력 소개, 김준태 시인의 56년 인연, 김연두·김포천·정영도·박신영·이근모·이길욱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이어 김관 시인의 시낭송, 전숙 시인의 시낭송 등이 펼쳐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야기 할머니들의 이야기 구연이 펼쳐진다

tvN 스토리 '오늘도 주인공' 6월 중순 방송...4월 7일까지 접수

'이야기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구연으로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tvN 스토리 채널에서 6월 중순 방송되는 일명 '오늘도 주인공' (가제).

참가자는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과 tvN 스토리 인스타그램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 후 15일부터 4월 7일까지 지원서와 자기소개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6070 이야기예술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6070 세대가 예술창작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

으며, 현장 오디오션을 통해 본선 진출자 15명 안팎을 선발한다. 활동 중이거나 활동 경험이 있으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본선에서는 팀을 이룬 이야기예술인들이 멘토의 도움을 받아 이야기극을 기획하고 제작한다. 멘토는 배우, 가수 등 연예인 등이 참여하며 이야극은 이야기를 비롯해 음악이나 동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연으로 이루어진다.

최종 결선은 팀별 이야기 공연 배틀을 선보일 예정이다. 심사는 어린이와 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심사단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